

건축문화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8.11.108호

광주광역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협회
발행인 : 강현구, 조연준, 이길한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사랑

광주건축사회,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경찰청장 표창 수상

지난 10월 26일 호암아트홀에서... 범죄예방 도면작성 매뉴얼화 및 보급 공적으로

광주건축사회, 일본 JIA후쿠오카회와 국제교류협의를 위한 방문 진행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방문, 교류 방안 및 교류 20주년 기념사업 협의 위해

광주건축사회, '2018년 제1차·제2차 광주건축문화투어' 성료

지난 10월 13일 서울권과 11월 10일 충남·전북권 진행... 110여 명 참석

전남건축사회, 2018년 행복동지사업 100호 입주식 행사 동참

지난 10월 27일 완도군 신지면 일원에서... 현판부착 및 입주자 격려

'2018 전라남도 건축 관계자 워크숍' 성료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150여 명 참석, 건축·주택업무 직무 역량 강화

건축문화사랑 창간 9주년

Editorial

소규모 건축물의 관리강화

전남건축사회, '2018 전남 건축인의 밤' 행사 개최한다.

오는 12월 14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 3층 컨벤션센터에서...

전북건축사회 '저소득 가정 집수리 사업' 지원 성금 전달

지난 10월 24일 전라북도청 방문하여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 원 전달

일본 건축가협회 구주지부 기고시마 회원 전북 방문

지난 10월 28일부터 3박 4일 동안... 전북건축사회와 교류사업 일환으로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성료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북도청에서 다채롭게 진행

제22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건축문화사랑 신문 편집위원 & 학생기자 활동후기

사랑에서 _ 마흔여덟 번째

짓다 [진:파]

책 소개

당신의 조각들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원본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Editorial

소규모 건축물의 관리강화

지난 6월 27일부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그동안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생겨도 피해보상이 어려웠던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건축주의 직접 시공범위를 축소했다. 또 이에 앞서 부실시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규모 공사 현장에 현장 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부실시공을 퇴출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체감은 이에 미치지 않아 아쉽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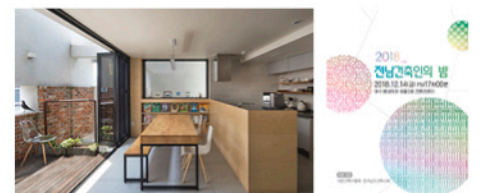
일단 첫째, 건축주 직접 시공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현실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내 집을 내 손으로 짓고자 하는 건축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치는 아니다. 직영 공사라 신고는 하지만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미 너무도 공공연해서 비밀도 아니다. 또한 건축의 기술력은 나날이 진보하며 흠집을 이웃과 함께 짓던 시대가 아닌 기술자가 집을 지어야 하는 시대에 도래했다. 단 한 평의 집을 지어도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비전문가인 집주인이 직접 시공을 한다면 전문가로서 자제시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두 번째, 집이란 것을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면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내 집이니 내 맘대로 한다? 그러다 보니 싸게 대충 짓기 일쑤다. 싸게 지을 수가 없는 게 집이고 대충 지었다가는 안전에 위협이 되고 기본적인 단열조차 법적 성능을 묻지 못하게 된다. 그런 집들이 당장 5년 후 10년 후에 사회적 비용을 잡아먹는 주거 취약 환경을 만든다. 지금 도시재생이 필요한 주거지를 보면 하나같이 대충 싸게 지은 집이다. 집은 개인 것이 아닌 사회적 자산이라 여기는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짓는 시스템을 바꾸자. 현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법의 취지는 잘 알고, 동의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억 원의 자본금을 들여 건설업 등록한 한 건설업체가 수익이 거의 나지 못하는 소규모 공사에 뛰어드는 것은 현실에서 쉽지 않다. 불가능에 가깝다. 단지 교묘한 면허대여만 성행시킬 뿐이며, 현실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을 담당할 새로운 면허제도가 필요하다. 건축사에게 시공을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좋다. 기획부터 설계, 감리, 시공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전문가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면 품질은 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부실설계와 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설계, 감리자 위주로 이뤄지는 처벌을 현장 관리자까지 확대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의 막중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강미현 논설위원
(건축사사무소 예감 대표 건축사)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 치유센터

이순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미가온

광주 동구 의재로136번길 22-3, 미가온빌딩 2층 Tel. 062-363-5462



대지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산 181-3번지 / 대지면적 : 4,871.00㎡ / 건축면적 : 421.42㎡ / 연면적 : 416.62㎡
 건폐율 : 8.65% / 용적률 : 8.51% / 규모 : 지상 1층 / 구조 : 목구조 / 주요마감 : 목재(이베), 금속판넬, 35mm로이삼중유리

광주건축사회,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경찰청장 표창 수상
 지난 10월 26일 호암아트홀에서... 범죄예방 도면작성 매뉴얼화 및 보급 공적으로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가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10월 26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경찰청이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단체 부문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것이다.

광주건축사회는 광주 서부경찰서 및 서구청과 2017년 8월,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건축사사무소에 건축물의 범죄예방 도면작성 및 설계 반영과 구청 인허가 시 건축주 준수사항에 방법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원룸 범죄예방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사업으로 건축주와 건물주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예방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CPTED 추진에서 벗어나 민간자본 유입으로 범죄예방시설을 설치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효과가 인정되어 서부경찰서는 2017년 10월 15일 경찰청 '취약구조 개선사업 시범모델' 전국 10개 경찰서에 선정되었으며, 2017년 12월에는 범죄예방 건축매뉴얼 제작 및 제공(원룸)하고, 2018년 4월에는 금융기관 등에 범죄예방건축 매뉴얼을 보급하며 확대하였다.

특히,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신축 원룸 100개소 중 90개에 범죄예방시설물 도면을 반영하도록 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강현구 회장은 수상 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범죄예방시설 매뉴얼을 건축사사무소에 보급 및 도면에 반영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국토교통부에 범죄예방 시설 반영 시 인센티브 제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일본 JIA후쿠오카회와 국제교류협의를 위한 방문 진행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방문, 교류 방안 및 교류 20주년 기념사업 협의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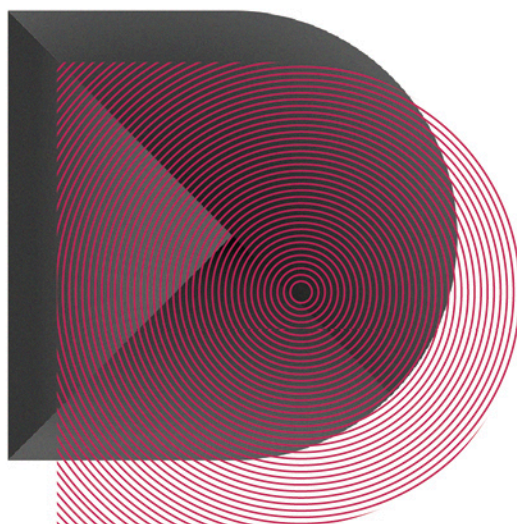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을 비롯하여 안길전 국제위원장, 신정철 후쿠오카회 20주년 교류기념사업 TF팀장, 장성문 국제위원, 양동희 사무처장이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JIA후쿠오카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JIA후쿠오카회 사사키 토시히사 현 회장을 비롯한 쿠리야마 마사오 등 역대 회장 및 국제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국제교류방안 및 2019년 교류 2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1999년부터 일본 JIA후쿠오카회와 국제교류 협약을 맺고 매년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교류 10주년을 맞아 '교류는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자를 공동 발간했다.

같지만 다른 카드,
 아키디자인

기간제한 없이 무료!



1899-9260

작업효율 아키디자인, 무료제품 론칭 기념

100%당첨 이벤트

무료카드 쓰고,
 무선충전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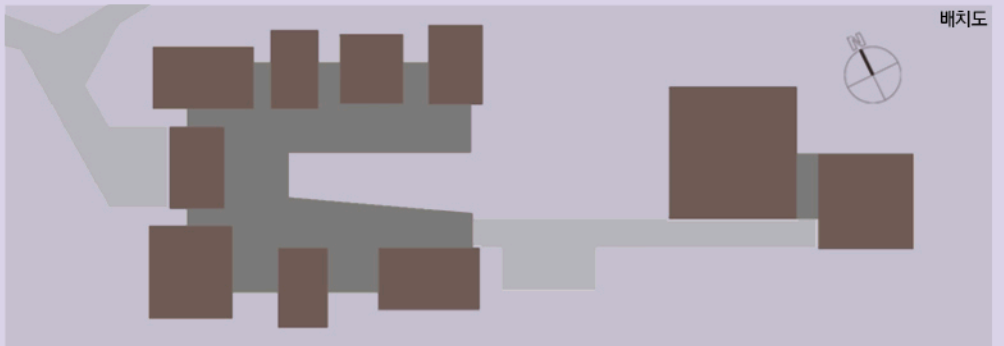


* 이벤트의 자세한 사항은
 아키디자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midasCAD.com



자연을 즐기며, 자연의 일부가 되고,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치유센터.
현대사회의 긴장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만연산 치유의 숲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여유롭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계획.



광주건축사회, '2018년 제1차-제2차 광주건축문화투어' 성료

지난 10월 13일 서울권과 11월 10일 충남·전북권 진행... 110여 명 참석



광주건축사회가 주관하고 광주광역시 후원하는 '2018년 광주건축문화투어' 제1차와 제2차가 성료됐다. 일반 시민과 학생, 건축사 등 총 1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1·2차 건축문화투어는 광주시의 건축과 도시의 과제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축문화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광주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

제1차는 지난 10월 13일 서울권 답사로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작에 선정된 도봉구 '평화문화단지'와 2018 대한민국국토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에 선정된 마포구 '문화비축기지'를 답사했다. 제2차는 11월 10일 충남·전북권으로 자연과 곡면을 활용한 건축물인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 '에코리움'과 2017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에 선정된 전북 익산의 '전라북도과학교육원' 그리고 일제 수탈 역사를 품은 공간을 문화예술창고로 변모시킨 전북 완주의 '삼례문화예술촌'을 답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강현구 회장은 "우수한 건축도시문화를 형성해 가는 도시들을 답사하며, 우리 광주시의 건축도시문화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시민들이 직접 이해하고, 그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건축인의 밤도 31일 진행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후원하는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지난 10월 31일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석중 회장,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등 내외빈과 시민 및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과 함께 11월 3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 특히 올해 광주의 우수 건축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광주광역시건축상 수상작품 전시회'와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들의 설계 작품을 전시하는 '광주건축사 회원 작품 초대전', '지역 건축학과 학생 작품전', '어린이 건축물 사생대회 수상작품전' 등을 선보였다.

이밖에 개막식 당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광주지역 건축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2018년 광주건축인의 밤'이 개최되었으며, 이 행사에서 광주시건축상 시상 및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시상, 사진공모전 시상, 자랑스러운 광주건축인 추대식, 감사패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한편 올해 자랑스러운 광주건축인으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유연창 건축사와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박강철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두 건축인 모두 광주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이 인정되어 추대됐다.

광주전남건축사협동조합, 발기인 창립총회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진행

광주아키텐플랜주식회사도 지난 10월 18일 설립완료하고 구조계산업무 등 사업 개시

광주전남건축사협동조합과 광주아키텐플랜주식회사가 발기인 창립총회 및 설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먼저 광주전남건축사협동조합은 지난 10월 30일 광주건축사회 소회의실에서 강현구 설립동지자 외 18인의 발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승인의 건과 임원선출의 건,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설립경비 등 기타설립에 필요 안건 등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정관승인의 건은 수정의결되었으, 임원선출의 건에서는 이사장에 신정철 건축사와 부이사장에 조연준 전남건축사회장, 상임이사에 강현구 광주건축사회장 등이 선출됐다. 또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승인의 건과 설립경비 등 기타설립에 필요 안건 등도 원안의결했다.

이와 함께 광주아키텐플랜주식회사도 지난 10월 18일 설립을 완료하고 현재 구조기술사 및 직원을 채용하여 구조계산업무를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출자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체 사무실 담당자(TEL. 062-511-1236 / 광주 북구 무등로 255 5층)에게 문의하면 된다.

광주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김영완 건축사 / 디유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무등로 255
 - 장경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진양SPACE / 광주 서구 상무화원로32번길 24, 701호
- **결혼**
 - 오금열 건축사 /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11월 10일(토)
- **부고**
 - 김승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룰 / 빙부상 - 10월 23일(화)
 - 정인채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정호 / 부친상 - 11월 12일(월)



조대병원 광역치매안심센터

박종호 건축사 / 유민 건축사사무소
전남 나주시 남평읍 강변1길 65-13, 2층 Tel. 061-332-0206

대지위치 :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병원 내 / 공사면적 : 지상 2층 1,003.83㎡ / 주용도 : 의료시설 및 종합병원 / 건축구분 : 리모델링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전남건축사회, 2018년 행복동지사업 100호 입주식 행사 동참

지난 10월 27일 완도군 신지면 일원에서... 현판부착 및 입주자 격려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지난 10월 27일 전라남도가 서민 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행복동지사업의 대상자 100호 입주식 행사에 동참했다.

전라남도과 함께 2016년부터 시작한 행복동지사업은 올 한 해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삼성전자 광주사회공헌센터 등 민·관 합동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번 100호 입주 주인공인 완도 신지면 박 모 씨는 척추협착증과 우울증 등으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려워 2017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돼 생활하고 있다. 건물이 노후해 지붕에서 물이 새고, 건물 벽이 균열되는 등 붕괴 위험이 있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전남건축사회는 건축허가 관련 사항을 지원하고 전남도와 주택협회 등은 물이 새는 지붕을 칼라 강판 지붕으로 교체하고 벽면 보수 및 도색 공사를 했으며, 난방, 화장실, 부엌 등 주택 내부 전반을 개·보수했다. 또 완도군과 주민·사회단체에서 내부 청소, 주변 환경 정비 등 민·관이 협력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한편, 행복동지사업은 전라남도 시책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4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전남도건축사회 등의 재능을 기부받아 총 348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했다.

'2018 전라남도 건축 관계자 워크숍' 성료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150여 명 참석, 건축·주택업무 직무 역량 강화



전남건축사회와 전라남도가 건축사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등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전남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2018 전라남도 건축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 도, 시·군의 건축·주택업무 담당자 90여 명과 도내 건축사 6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건축정책 추진 및 전라남도 건축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 전라남도 건축자산의 개념 및 활용에 대한 목포대학교 유창균 교수의 강연과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상영작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축사와 공무원들이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어 전남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창간 9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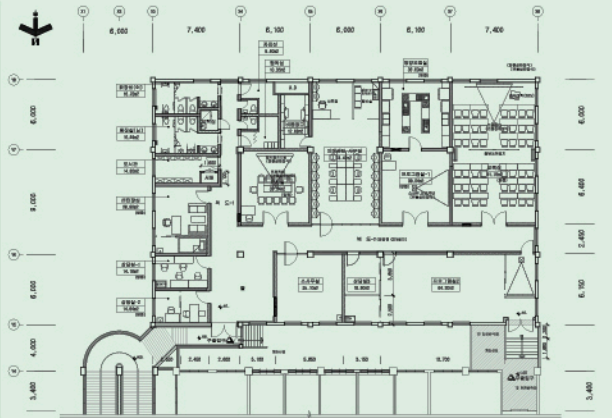
- | | |
|------------------------------|----------------------------|
|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조연준 건축사사무소 창조 | 목포지역건축사회 회장 김동만 대림 건축사사무소 |
| 전라남도건축사회 부회장 서계원 우리건축사사무소서건축 | 순천지역건축사회 회장 김강룡 유피 건축사사무소 |
| 전라남도건축사회 이사 손병완 영우 건축사사무소 | 여수지역건축사회 회장 배중수 한려 건축사사무소 |
| 김정 대진 건축사사무소 | 나주지역건축사회 회장 최세호 빛가람 건축사사무소 |
| 이정심 가인 건축사사무소 | 광양지역건축사회 회장 박병엽 박병엽 건축사사무소 |
| 박종경 (주)가야 건축사사무소 | 무안지역건축사회 회장 정정진 건축사사무소 정원 |
| 김용균 유로 건축사사무소 | 장흥지역건축사회 회장 문성식 AUD 건축사사무소 |
| | 영암지역건축사회 회장 박명재 명제 건축사사무소 |
| | 해남지역건축사회 회장 정용재 태진 건축사사무소 |
| | 화순지역건축사회 회장 범정범 건축사사무소 |
| 전라남도건축사회 감사 장세운 이레 건축사사무소 | 장성지역건축사회 회장 최성수 건축사사무소 창 |
| 백재봉 백 건축사사무소 | 고흥지역건축사회 회장 남윤홍 해동 건축사사무소 |

-전라남도건축사회 조연준 회장과 지역건축사회장 그리고 회원 일동-





광역치매센터는 조선대학교 병원 내에 있는 낯은 시설물로 기존병원 내에서도 접근이 어렵고, 인지도가 부족한 시설로 사용되고 있었다. 치매센터의 “치매 예방, 조기진단”이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밝고, 쾌활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설계의 주안점으로 두었다. 이용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실, 프로그램실, 회의실에는 방음 자재를 적용하였다. 특히, 교육실은 방음용 폴딩도어를 설치해 공간의 분리, 통합이 가능하게 설계하였다. 복도는 밝고, 편안하며, 실별 시안성을 고려한 색상들을 부분 적용하여 센터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전남건축사회, '2018 전남 건축인의 밤' 행사 개최한다

오는 12월 14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 3층 컨벤션센터에서...



전남건축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2018 전남 건축인의 밤' 행사가 오는 12월 14일 오후 5시 전남 여수 베네치아 호텔 3층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전남 건축인의 밤은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남 건축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건축인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식전행사와 기념식, 축하 공연, 화합 마당 순으로 진행되며 전남도립대와 동신대, 순천대 등 전남소속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하는 식순도 개최될 예정이다.

조연준 회장은 "전남 건축인의 밤은 전남지역 건축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 도시재생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막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들의 생각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잇다.



전남 순천시가 주민들의 생각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도시재생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주민들의 현장감 있는 생각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반영하고자, 2단계 도시재생 지역(저전·장천·남제)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목 토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 3일 순천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첫 단계로 '주민 아이디어 학교'를 개최했다. 아이디어 학교에는 주민 70여 명이 참석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아이디어 및 주민 공동체 사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앞으로 한 달간, 20개 팀으로 나뉘어 아이디어를 숙성하기 위한 그룹별 토론을 이어 나간다.

순천시는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통해 도출된 주민들의 '생각'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 광양시,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최종 승인

2020년까지 총 100억 원 투입, 4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으로 추진

전남 광양시는 지난 11월 6일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84만㎡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전라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인 실행계획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시는 그동안 2015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2차에 걸친 국토부 관문심사를 거친 후 2017년 9월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득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라남도로부터 전략계획 승인을 받아 '활성화 지역 지정'을 완료한 후,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시는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골목과 한옥, 문화로 다시 가꾸는 광양 살터'를 비전으로 '일상성 강화하기', '매력 더하기', '교류 공간 구축하기', '함께 만들기'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2020년까지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사업은 4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며, 먼저 주거역사재생분야로는 ▲광양한옥 가꾸기 사업 ▲한옥공존임대주택 조성사업 ▲열린 골목 환경정비사업 ▲광양읍성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48억 원이 투입된다.

녹색재생 분야로는 ▲우리읍내 숲 가꾸기 사업 ▲골목정원 조성사업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2억 원이 투입된다.

상가재생 분야로는 ▲광양읍 문화 플랫폼 조성사업 ▲문화창고 운영사업 ▲상점가 재구조화사업 ▲시계탑사거리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4개 사업에 22억 원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반구축 분야로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8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번 활성화 계획 승인을 계기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중 지역 역량 강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12월 중 한옥 가꾸기와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다.

전남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김건용 건축사 / 정민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제철로 1330
- **부고**
 - 최성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창 / 모친상 - 10월 02일(화)
 - 최세호 건축사 / 빛가람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0월 19일(금)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이효준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청연
전북 완주군 이서면 출판로 34, 403호
Tel. 063-243-1246



대지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장계면 한들로 124 / 대지면적 : 1,738.00㎡ / 건축면적 : 449.58㎡ / 연면적 : 808.77㎡ /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화산석, 압출성형시멘트패널, 고내식발색강판, 친환경합성목재

전북건축사회 '저소득 가정 집수리 사업' 지원 성금 전달

지난 10월 24일 전라북도청 방문하여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 원 전달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이길환)에서는 지난 10월 24일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송하진 지사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 집수리사업 지원' 성금으로 1,000만 원을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길환 회장은 집수리를 통해 개선된 환경에서 따뜻한 겨울나기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과 함께,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앞으로도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길환 회장은 집수리를 통해 개선된 환경에서 따뜻한 겨울나기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과 함께,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앞으로도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건축가협회 구주지부 가고시마 회원 전북 방문

지난 10월 28일부터 3박 4일 동안... 전북건축사회와 교류사업 일환으로

일본 건축가협회 구주지부 가고시마지역회 회원(회장 우토 히토시)들이 지난 10월 28일 3박 4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일 간의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건축정책의 변화, 건축기술의 발전 등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전라북도건축사회와의 교류사업(격년마다 상대국 방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가고시마지역회 방문단은 방한 기간 부여 백제문화단지과 전라북도과 학교교육원(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익산 미륵사지석탑, 전주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체험했다.

또한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19회 전라북도건축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구마모토 지진과 건축가의 활동'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개막식에 온 많은 참석자들의 지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전라북도 청사 1층에서 전시하고 있는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을 관람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한편, 가고시마지역회 우토 히토시 회장은 "한국은 일본에는 없는 온돌 등의 전통문화가 눈길을 끈다"면서 "전라북도건축사회와의 양국 간 국제교류는 옛 전통양식 등 서로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성료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북도청에서 다채롭게 진행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북도청에서 개최되었다. 전라북도건축문화제는 전북도와 (사)전라북도건축문화진흥연합회(회장 이길환)가 공동 주최하고 전라북도건축사회를 비롯한 5개 건축단체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건축! 전북을 짓다'라는 주제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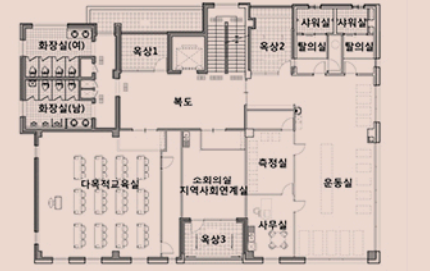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인 '건축문화사랑'이 창간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지역건축문화 창달과 부흥에 앞장서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호남권 건축사 회원님들과 교수님들, 공무원님들,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 그리고 시·도민들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구둑을 당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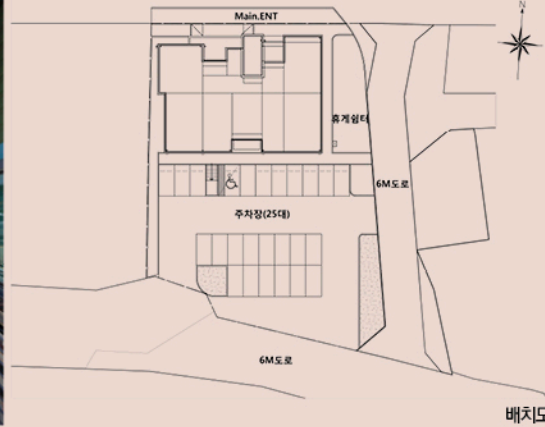
전라북도건축사회 이길환 회장 외 회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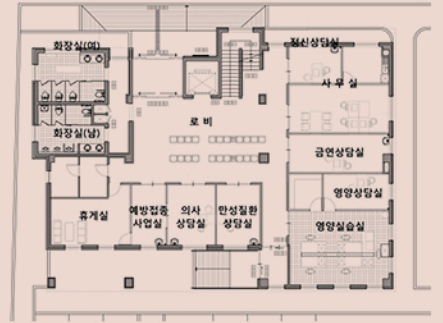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신축 의도는 장수 군 의료원,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되는 보건기관의 인프라 구축이었는데, 도시미관과 자연경관이 조화되면서도 시설 이용자의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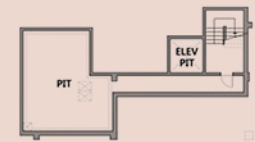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배치도



1층 평면도



PIT 평면도



주요행사로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전시(제19회 전라북도건축문화상 수상작,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 한옥기획전시, 전라북도 내 교육 시설 당선작 전시, 건축사진작가 초대전, 건축문화제 특별교류전-서울) ▲학술발표 ▲차세대 꿈

나무 육성사업(어린이 집그리기 대회, 과자로 집만들기 체험, 건축 백일장 대회, 건축 올림피아드) ▲도민참여 행사(건축 및 진로 상담) 등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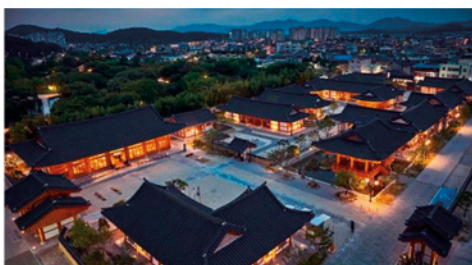
이길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문화제는 무엇보다도 건축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학부모, 중·고·대학생까지 참석했다"며 "전라북도의 자랑스러운 건축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창의적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도민들과 공감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축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만큼 건축인들도 힘들겠지만 용기와 희망을 갖고 건축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아름다운 전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접수된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작품 공모작 [일반 부문(사용승인), 학생 부문(건축계획, 기술계획), 건축사진 부문] 수상작과 어린이 집그리기대회, 건축백일장, 건축올림피아드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10월 30일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 수상작 발표

이길환 건축사(주)길 종합의 '남원 예촌'과 김용 건축사(김용 건축)의 혁신도시 '테라스 샵(#)' 대상으로 선정



남원예촌



테라스 샵(#)

전라북도는 지난 10월 24일 제19회 전북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 부문에는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의 이길환 건축사가 설계한 '남원 예촌'이 대상을 차지했다. 남원 광한루원 북쪽 구도심에 위치한 '예촌'은 연면적 1,673㎡, 1층 규모의 한식 목구조 건축물로 이뤄진 전시장 및 체험관이다. 건물의 본채와 마당으로 이뤄진 전통공간을 재현하고 조선시대 건축양식뿐 아니라 백제시대 건축양식인 하양식 구조를 적용해 우리 지역의 전통건축을 재현하려 노

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일반 부문 대상은 김용 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테라스 샵(#)'이 선정됐다. 혁신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한 상가 건축물로 입면에 고벽돌과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해 적당한 무게감과 혁신도시의 품격에 맞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형성했다. 각 층에 테라스를 구성해 폐쇄적이고 답답한 상가건물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외부 공간과의 소통을 시도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다음은 올해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 수상작 목록이다.

■ 사용승인 부문(공공 분야)

훈격	작 품 명	성 명
대상	남원 예촌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 / 이길환
금상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주)스페이스모 건축사사무소 / 이성명
은상	디디다 : 꿈을 향해 도약을 준비하다.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빙인섭
동상	전주시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건축사사무소 디엔 / 유희완

■ 사용승인 부문(일반 분야 - 주거·비주거·한옥)

훈격	구 분	작 품 명	성 명
대상	비주거	테라스 "샵(#)"	김용 건축사사무소 / 김용
금상	주거	THE BOMBOO HOUSE	(주)건축사사무소 오비비에이 / 곽상준
	비주거	관가정	(주)맥 건축사사무소 / 이근수
	한옥	대성동 주거단지계획	그린 건축사사무소 / 진현용
은상	주거	어서오세요 단독주택	건축사사무소 예감 / 강미현
	비주거	여의동 근생	포럼 건축사사무소 / 문병률
동상	주거	만성동 다솜이네 단독주택	예손 건축사사무소 / 유성환
	비주거	그날의 온도	백현 건축사사무소 / 양우현

전북 회원동성

• 변경(소재지)

- 김진우 건축사 / ㈜바른종합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3-16, 501호

• 결혼

- 백헌기 건축사 / 미림 건축사사무소 / 여식 결혼 - 10월 21일(일)
- 한병진 건축사 / 한진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10월 28일(일)
- 김상수 건축사 / 한솔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11월 03일(토)
- 최태훈 건축사 / 삼보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11월 17일(토)

• 부고

- 김윤형 건축사 / 디딤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11월 02일(금)

제22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주거 부문 금상

설계자 : 임태형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 시공자 : 임태형

백소헌(白巢軒)

광주광역시 백운동의 한적한 주택가에 저녁이 되면 따뜻한 불빛으로 집 앞과 동네 골목을 비추는 집이 있다. 담장도 없고, 대문도 없다. 외관은 흰 벽과 적고벽돌이 조화를 이루고, 옥상의 블랙박스엔 먼 곳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 자신만의 좌표를 지니고 있다.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592-31 / 대지면적 : 121.5㎡ / 건축면적 : 72.51㎡ / 연면적 : 183.41㎡
 건폐율 : 59.41% / 용적률 : 151.95% / 규모 : 3층+다락 / 주용도 : 주택 및 교습소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1. 아틀리에
2. 주차장
3. 뒷 마당
4. 거실
5. 주방
6. 보조주방
7. 화장실
8. 욕실
9. 침실
10. 테크
11. 안방
12. 자녀방
13. 다락방
14. 드레스룸
15. 세안실
16. 욕실
17. 세탁실
18. 창고
19. 블랙박스&육상데크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다락 평면도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공공 분야) 대상

설계자 : 이길환 건축사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

남원 예촌

한국의 전통적 정서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한(韓)스타일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으로
 광한루원 방문객의 동선을 유도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심 재생을 도모하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되돌아보는 교육, 전시, 체험공간으로 역사문화 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관광명소로 육성 기틀 마련



대지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금동 77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1,079㎡ / 건축면적 : 1,673.42㎡ / 연면적 : 1,673.42㎡
 규모 : 지상 1층 15개동 / 구조 : 한식목구조 / 주요마감 : 외벽기회벽마감, 전통한식기와



기본개념

가용성: 기존건물 리모델링, 기존건물 리모델링, 기존건물 리모델링
 조형성: 전통의 정통성, 전통의 정통성, 전통의 정통성
 친밀성: 유지관리 및 쾌적성, 유지관리 및 쾌적성, 유지관리 및 쾌적성

① "주민환경과 조화" : 자선문화적인 재조용
 ② "전통의 정통성" : 재분할 이어지 연속
 ③ "유지관리 및 쾌적성" : 공간의 쾌적성을 고려

현황분석

A. 접근동선 B. 동선분석 C. 향과 조망



배치도

평면도 - 한옥생활체험공간

I 한옥생활체험관-1, 2, 3, 4, 5

건축문화사랑 신문 편집위원 & 학생기자 활동후기

“건축문화사랑 9주년!
우리 건축문화사랑이 여러 독자님들의 사랑을 받아온 지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건축문화사랑 편집장으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뭔가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문화사랑의 지면 구성변화와 함께 내년에 있을 10주년 행사내용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 된 듯합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변화에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강동영 편집인(광주)

“처음에 연락을 받고 '신문? 그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건축문화사랑 신문에 대해서 잘 모르고 회의에 참석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이 되었나 봅니다. 이제는 신문을 보거나 읽으면 애뜻한 기분이 드네요. 많은 건축사님들이 읽는 그 날까지 파이팅!
설혜순 편집위원(전남)

“1년도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행인 및 편집위원 합동회의
1년간 학생기자를 하면서 건축에 관련된 소식, 행사 등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를 해 단순히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배운 것들이 더 많아 좋았습니다. 반드시 후배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학생 기자의 경험이었습니.
홍승완 학생기자(순천대)

“건축문화사랑 신문 창간 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건축 관련인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편집위원으로서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소통하는 편집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근 편집위원(전북)

“가을을 보내는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 건축문화사랑의 또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올해는 얼마나 많은 건축문화사랑을 생각하며 행복했는지, 작은 아쉬움과 함께 잘 살아낸 모두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최정미 편집위원(전북)

“나의 생각과 주변의 활동들을 글로 표현하여 건축문화사랑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나를 한 단계 더 발전하게 하는 인생의 뜻깊은 경험입니다.
배성훈 학생기자(전남대)

“다 보면 순간순간 특별한 무언가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열중하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 같다.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로 열중한 일은 무엇이였을까? 순간이 아닌 한결같이 우리 곁에 묵묵히 함께하는 건축문화사랑. 나 또한 순간 열정을 다하는 건축문화사랑이 아닌 꾸준히 함께하는 편집위원이 되고자 한다.
윤미순 편집위원(전북)

“건축문화사랑은 여기에 기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작은 시간, 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이 매체가 하나의 건축 작품보다 더 의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더욱 좋은 작품으로 회자되고 좋은 영향력을 지닌 사랑지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며 참여하겠습니다.
임태형 편집위원(전남)

“학생기자단을 하면서 처음 제 원고가 지면에 실렸을 때 그 박람과 설렘을, 또 학생들과 건축사분들과의 소통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최길호 학생기자(군산대)

“저의 글이 실려 있는 신문을 보며 되게 좋아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글을 쓰며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에 만날 건축문화사랑을 기다립니다. BAAAM!
임준영 학생기자(목포대)

“건축문화사랑 신문 학생기자로 활동하면서 건축을 바라보는 생각이 더 깊어지며 넓어지게 되었고 기사를 써봄으로써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비록 학생기자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큰 영향력과 많은 생각을 가져다준 학생기자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규 학생기자(원광대)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하지만 일상 속에 숨겨진 건축 이야기를 발견해내는 학생기자가 되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정민 학생기자(전북대)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p>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규,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상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p> <p>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강동영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영환 전담기자 박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박종혁, 설혜순, 정영범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p>	<p>발전기금: 1만 원부터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주)씨엠엑스 350,000원 (주)마이디스아이티 300,000원</p> <p>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p>
---	--

法家 공증인가 법가
법무법인 법가

▶ 공증업무, 송무업무, 등기업무, 신청업무

대표변호사 **박철**
朴 哲

- 변리사
- 대한변협 이사, 청년특위 위원장
- 광주변호사회 총무이사
- 법정문화발전협의회 위원
- 광주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로78번길 7(지산동)
T. 062-233-8070 / F. 062-223-5376 / M. 010-6678-1551
E. pcgranfa@hanmail.net / www.법가.com

사랑에서 _ 마흔여덟 번째

짓다 [짚:따]

우리의 글에는 아름다운 단어가 많다. 물론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정적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나 이름을 짓다’

사람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길 바라는지 의미를 부여한다. 평생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 그 이름은 태어나서 처음 받는 선물이다. 그 이름은 일생과 함께한다. 이름을 짓는 것은 생명의 시작이다.

‘옷을 짓다’

배냇저고리는 것을 달지 아니한 갓난아이의 저고리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 처음으로 입히는 첫 옷이다.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는 그때도 그전에도 사랑하는 아기의 건강을 기원하며 평생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옷을 지으셨다. 그때부터 옷을 짓는 행위는 선물이며 항상 기쁨이었다.

‘밥을 짓다’

할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위해 미역국에 흰쌀밥을 지어 주셨다. 아이가 젓을 떼고 밥을 먹을 때쯤 어머니는 내게 밥을 지어 주셨다. 그 밥은 어머니가 주신 사랑이었다.

‘집을 짓다’

집은 지금도 가족을 기쁘게 한다. 보금자리가 된다. 어린아이 때 아버지가 지은 집은 작은 기와집이다.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했다. 입주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며 즐겼다. 아무것도 모른 어린 나이 소년은 마냥 신났다. 가족은 행복했다.

‘웃음을 짓다’

소리 없이 빙긋이 웃는 웃음은 상대를 향한 존중이며 겸허이며 사랑이다. 상대와 눈빛을 마주하며 보내는 미소는 좋은 기운을 전달한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상대를 기쁘게 한다.

아름다운 이름을 짓고, 자식을 위해 배냇저고리를 짓고, 따뜻한 밥을 짓으며, 집을 짓는 그리고 빙긋 웃는 웃음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베풀며 나눌 수 있는 나의 행동에서 시작된다. 짓는 것은 상대를 위한 선물이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천십팔년 십일월 구일 마룩로 67
자문위원_정명환 건축사(a2700@hanmail.net)

책 소개 _ 임준영 학생기자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당신의 조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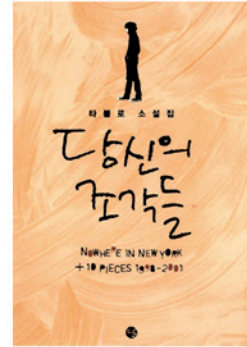
타블로 지음 / 달 / 2008. 10. 16.

“뭐가 들리니?”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비 냄새가 났다. 나는 눈을 떴다. 아버지는 그저 그 질문을 반복할 뿐, 내 대답은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시간의 작고 깊은 틈에 갇혀 있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려요.” -〈안단테〉 중에서-

“아름다웠던 만큼 슬펐던, 슬픈 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던 날들. 그 때와 많이도 멀어진 지금, 어떻게 보면 나는 여전히 제자리다.” ‘에픽하이’ 그룹의 리더이자 이 책의 저자인 타블로는 10대의 꼬트러미와 20대의 시작 지점에 자신이 영어로 썼던 원문을 한국어로 직접 번역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 역시 10대의 끝자락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글쓰기와 나의 시기가 비슷했던 이유일까, 그 당시에 나는 이 소설의 내용과 그리고 타블로라는 사람에게 공감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의 뜨겁도록 차가운 이야기들이 내 어린 날의 조각 속에 남겨지게 되었다. 20대의 중간 지점에 나는 다시 이 책을 꺼냈다.

이 소설에 실려 있는 글들은 기쁘지 않다. 바꿔 말하면 이 글들은 슬프며 아픔을 담고 있다. 하지만 찬란한 슬픔 속, 소설의 주인공들은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 모두 서로 다른 행복을 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슬픈 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던 타블로의 지난날들, 그의 생각에 동화되어 누군가의 지나가 버린 조각들을 조심스레 꺼내 맞추어 본다.



세상사는 느낌 _ 홍승완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TED 강의를 듣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명사들의 생각을 듣고 영어 공부를 할 겸 TED 강의를 가끔씩 시청한다. 손이 가는 강의를 클릭해 듣는다. 최근 시청한 영상 중 렌초 피아노의 강연이 있었다. 15분의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했다.

아름다움을 알지만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람을 생각하는 건축가, 그렇지만 건축가는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건축가. 렌초 피아노가 강조하는 것은 이 세 개뿐이었다. 건축은 인류가 살아가고 일할 공간을 만드는 예술이기에 아름다움과 인도주의를 지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건축물이 지어질 때를 생각해보았다. 처음 하나의 장소를 선택할 때 어떠한 지역이 좋을지 이곳에 얼마나 큰 건축물이 지어질지 어떤 형태여도 괜찮을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게 된다.

다음 단계인 설계에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도면을 치고 대지 모형, 건물 모형을 만들 때도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 공법에 맞추어 땅을 파고 철근을 꽂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두말할 것 없다.

적게는 몇십 명의 사람부터 많게는 몇만 명의 사람이 각 단계마다 달라붙어 하나의 건물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면 주변 환경과 어울려져 예술이 된다.

그 예술품에는 사람이 몰리기 시작한다. 거주하거나 일을 보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거나 단순히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예술품 주변에 모이기 시작한다.

많은 시간이 지나 수많은 변화 사이에서도 사람이 있는 건축물은 도태되지 않는다. 사람의 약속 장소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 건축물을 이용하면서 그로써 건축물이 활성화되며 관리받는다. 그러면서 건축물은 오래 이용되면서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당신의 공사감리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감리자 필수앱!! 터치 완성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사진대지 스마트감리앱

GET IT ON Google Play | Download on the App Store

PC로그인 www.archim.kr 콜센터 02 3462 1336
[문의] 이기상 건축사 (010) 8276 6158

건축문화 사랑 신문 창간 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외 임원 일동

회장 강현구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광주 북구 서암대로 315 T. 062-653-8122 / F. 062-522-8122	부회장 강석훈 건축사사무소 선명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 6-15, 5층 T. 062-972-8159 / F. 062-973-8159	부회장 이경행 아키씨엠 건축사사무소(주)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 209호 T. 062-232-4981 / F. 0505-516-4000	이사 유승희 원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매월종합상가 204동 212호 T. 062-603-2418 / F. 062-603-2419
이사 이기수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광주 동구 수기동 23-2 제일오피스텔 1201 T. 062-233-4800 / F. 062-233-4801	이사 임채열 나성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독립로367번길 73 T. 062-529-2300 / F. 062-529-0108	이사 정관성 (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광주 광산구 풍영로230번안길 41-2 T. 062-384-6430 / F. 062-384-6431	이사 조휴환 수전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장신로 337 202호 T. 062-528-8662
이사 최경락 라일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 37-1, 2층 T. 062-655-7321 / F. 062-431-7201	이사 최경양 한샘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동림로367번길 6, 3층 T. 062-526-4414 / F. 062-524-4415	이사 최보은 (주)창조 건축사사무소 광주 남구 서오층석탑1길 7-1 T. 062-233-7151 / F. 062-233-7153	이사 한상훈 (주)건축사사무소 휴 광주 남구 서오층석탑1길 7-1 T. 062-714-1055 / F. 062-714-1056
감사 강형선 종합건축사사무소 메카 광주 서구 화정로 293, 4층 T. 062-351-7400 / F. 062-369-6745	감사 문강욱 (주)승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중흥로 71, 2층 T. 062-526-8660 / F. 062-526-8663	■ 광주건축사회 TEL. 062-521-0025~6 / FAX. 062-528-0026 / 이메일 : gjkira@empas.com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	

회원사 광고

건축사 오금열 (주)디자인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장동로 41, 4층 T. 062-222-0210 / F. 062-222-0230	건축사 정명환 (주)디에이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마루로 67, 3층 T. 062-375-2800 / F. 062-375-7100	건축사 정상재 초석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무등로 255, 2층 T. 062-527-8043 / F. 062-527-8044	건축사 한명석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 광주 서구 경영로 20 T. 062-352-0415 / F. 062-352-0416
--	--	---	--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안길전 건축사



1. 남약신도시 10-1BL, 10-2BL 2.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EG the 1



3. 남문교회 4. 부산신항만 9, 10BL 5.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B2BL 공동주택

건축설계·감리 전문회사
 광주 남구 서오층석탑1길 7-1
 T. 062-233-7151~2
 F. 062-233-7153

일우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선영 건축사
 (광주건축사회 이사)



건축설계용역 및 공사감리, 개발사업컨설팅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128번길 63, 2층
 T. 062-367-7151 / F. 062-367-7153 / 3677151@hanmail.net

건축문화 사랑 신문 창간 9주년을 축하합니다.

- 서울특별시건축사협회
- 부산광역시건축사협회
- 대구광역시건축사협회
- 인천광역시건축사협회
- 광주광역시건축사협회
- 대전광역시건축사협회
- 울산광역시건축사협회
-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협회
- 경기도건축사협회
- 강원도건축사협회
- 충청북도건축사협회
- 충청남도건축사협회
- 전라북도건축사협회
- 전라남도건축사협회
- 경상북도건축사협회
- 경상남도건축사협회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협회